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홍예지<sup>1)</sup> 이순형<sup>2)</sup>

---

### 요약

---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에 참여한 60-66개월 유아를 둔 어머니 1,60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모두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유의한 조절 변인으로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유의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가족 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임을 시사하며,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가족 유연성, 양육 분담

---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론

가족 구성원 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상호작용 양식으로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토대이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가족 기능은 가족 체계 간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 체계의 기능에 따라 가족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강병재, 2010). 이와 같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힌다(Goldenberg & Goldenberg, 2013).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은 가족 기능을 가족 응집성(cohesion)과 가족 유연성(flexibility)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며, 가족 유연성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 내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할관계 및 관계적 규칙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적절하게 반응하는 가족 체계의 능력을 말한다(Olson, Gorall, & Tiesel, 2007). 다시 말해, 가족 기능은 가족의 요구, 목표, 삶의 만족감 및 정서적 유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념(Ghamari, 2012)으로 이는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는 가족 기능과 부모의 결혼 만족도(고정자·김갑숙, 2000), 우울(연은모·윤해옥·최효식, 2016; Krug et al., 2016) 및 스트레스(양진희·김영철, 2016; 홍예지·이순형, 2017; Koutra et al., 2016)와 같은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특히 가족 응집성은 가족 내에서 구성원이 경험하는 정서적 연결과 지지의 수준으로 개념화되며(Olson, 1986;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이는 가족 구성원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hamari, 2012). Mitchell, Szczerepa와 Hauser-Cram(2016)의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배우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가족 응집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 응집성은 자녀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Leary & Katz, 2004; Leidy, Guerra, & Toro, 2010). 예를 들어, Leidy, Guerra와 Toro(2010)의 연구는 만 5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의 높은 수준의 가족 응집성은 이들이 아동 후기가 됐을 때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 청소년기의 공격적 행동을 낮추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밝혔으며, Leary와 Katz(2004)의 연구도 유아기의 가족 응집성은 아동 중기 또래와의 친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과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응집성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Olson과 Gorall(2006)의 순환모델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극단적 현상을 경계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을 비선형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가족 응집성은 매우 낮은 수준의 가족 응집성을 의미하는 비관여적(disengaged)에서 가족 응집성이 지나쳐 매우 높은 수준의 극단적인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매몰적(enmeshed) 가족 응집성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유연성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의 가족 유연성을 의미하는 경직된(rigid)에서 가족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혼돈상태의(chaotic) 가족 유연성까지 이를 수 있으며, 이에 최적의 가족 기능은 역동적 분리와 연결의 차원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Olson & Gorall, 2006). 즉,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체계가 독립적 또는 전체적으로 기능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가족 구성원의 자립적 선택이 존중될 때 가족이 최적의 수준에서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가족 기능과 관련하여 Krug, Wittchen, Lieb, Beesdo-Baum과 Knappe (2016)의 연구는 가족 기능을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애정적 반응성, 애정적 참여, 역할 행동, 행동 조절과 같은 미시적 다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참고하여 가족 기능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 아닌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을 독립적 측면에서 분리하여 살펴보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까지 가족 응집성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 및 자녀 발달과의 관련을 살펴본 연구에 비해 가족 유연성과 이들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실정이다. 최적의 가족 기능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강조되는 만큼 가족 유연성과 다른 변인 간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더욱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 스트레스와 가정 내 지지를 의미하는 배우자의 양육 부담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변인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의 차이를 확인하고 가족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길러내는 생산적인 과정인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는 과정이다. 양육 스트레스란 가정 내에서 기대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거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내적 긴장,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및 신체적 부정적 반응으로 정의된다(Abidin, 1992; Deater-Deckard, 2004; Zhang, Cubbin, & Ci, 2016). 몇몇 연구에서 가족 응집성과 가

족 유연성에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Margalit과 Kleitman(2006)는 높은 수준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홍예지와 이순형(2017)의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신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역시 어머니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 밖에 가족 기능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가족이 처한 문제 중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을 저해하는 유의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Hassall, Rose, & McDonald, 2005; Mitchell & Hauser-Cram, 2009).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 가정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Shiegeto, Mangelsdorf, & Brown, 2014),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가족 체계의 기능과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양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에서 탈피하여 점차 양육의 책임을 부부가 함께 나누려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기혼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다. 즉,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과거에는 보조 양육자 또는 이차적 양육자에 머물러 있었다면(남효정·이숙현, 2011), 최근에는 기혼 남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를 돕고, 육아에 참여하는 것에 높은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으며(차동혁, 2014) 이에 아버지의 가정 내 가사와 양육에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된다(허영립, 2006). 그러나 이러한 개인 및 사회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현실은 저조한 실정이다. 통계청(2016)의 가사 분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41.9%)과 여성(51%) 모두 높은 수준에서 남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6.4%), 여성(16.0%)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점차 가사 분담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참여는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수준이 더 높다고 인지하거나 남편이 가사노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김은정·박성덕·김경철, 2014; 양진희·김영철, 2016; Ponnet et al., 2013). 즉,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

모 역할 수행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을 저하시킨다 (Kanner et al., 1981). 또한 가족 구성원의 개인사회적 안녕과 같은 심리적 상태는 가족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Abidin, 1992; Kanner et al., 1981; Mitchell, Szczerepa, & Hauser-Cram, 2016), 부부 간의 긍정적 관계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Ponnet et al., 2013). 다시 말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적절한 양육 분담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갈등과 같은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완충적 역할을 한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참여 및 역할 수행은 어머니의 양육에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양육 행위로 인한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감 및 만족감의 경험은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적 수행을 높여 가족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Gleditsch & Pedersen, 2017; Lamb, 2000). 무엇보다 아버지의 가사 분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남편의 가사 분담의 절대적 양보다는 어머니의 주관적 인식과 지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유계숙 외, 2011).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의 기능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역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유아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관계를 탐색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 활동에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로를 확인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6차년도(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6차년도부터 부와 모를 대상으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가정 내에서 자신과 배우자 간 양육 분담의 지각차이에 대한 보고가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변인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였으며, 어머니가 보고한 “결혼상태” 중 아버지의 부재가 보고된 미혼, 사별, 이혼, 별거 중인 상태의 대상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어머니 1,608명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Ponnet et al., 2013)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과 월 평균 가구소득이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편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66개월에 해당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6.10 ( $SD = 3.63$ ) 세이었으며, 유아의 평균 월령은 만 62.65 ( $SD = 1.34$ )개월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25 (51.3%)명, 여아가 783 (48.7%)명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38.2%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8.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문대졸 26.6%, 대학원졸 5.2%, 중졸 이하 .4%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하 32.3%,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47.1%,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13.5%,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5%, 1000만원 초과 .8%에 해당하였다.

### 2. 주요 변인

#### 가. 양육 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로 측정되었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등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의 자기보

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부담감과 같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 = .875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 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연구진이 Olson(2010)의 척도에서 응집성 및 유연성의 문항을 인출하여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족 응집성은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개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등의 7문항, 가족 유연성은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 응집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 = .886이고, 가족 유연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 = .823로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 다. 아버지의 양육 분담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연구진이 NICHD(1999)의 SECCY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사용 허가를 취득하여 번역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이를 목욕시킨다,’ ‘아이와 함께 놀아준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간다’ 등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평정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배우자가 함 1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 2점, 똑같이 함 3점, 대부분 내가 함 4점, 내가 함이 5점)로 측정되었으나 다른 변인과의 일관적 방향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보다 배우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함을 의미하도록 역코딩(내가 함 1점, 대부분 내가 함 2점, 똑같이 함 3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 4점, 배우자가 함이 5점)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신뢰도는 *Cronbach's a* = .910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간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020-1.174로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869-1.926으로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었다. 상호작용 분석 시 사용한 변인은 모두 평균 중심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1,608)				
변인	1	2	3	4
1. 양육 스트레스	1			
2. 가족 응집성	-.385***	1		
3. 가족 유연성	-.386***	.821***	1	
4. 아버지의 양육 분담	-.125***	.260***	.339***	1

(표 1 계속)

변인	1	2	3	4
평균	2.650	3.961	3.590	1.993
표준편차	.620	.578	.594	.541
왜도	.053	-1.010	-.514	.391
첨도	.152	3.024	1.265	.576

\*\*\*  $p < .00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응집성 ( $r = -.385, p < .001$ ), 가족 유연성 ( $r = -.386, p < .001$ )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 $r = -.125, p < .0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응집성은 가족 유연성 ( $r = .821, p < .001$ )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 $r = .260, p < .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족 유연성 역시 아버지의 양육 분담 ( $r = .339, p < .001$ )과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가족 응집성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 $\beta = .080, p < .01$ )과 월평균 가구소득( $\beta = .082, p < .01$ )이 유의미하였으며, 가족 응집성을 1.7%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 $\beta = .048, p < .05$ )만이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beta = -.345, p < .001$ )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 $\beta = .209, p < .001$ )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이는 종속변인을 17.3% 추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도 유의하였으며( $\beta = .071, p < .01$ ), 이는 가족 응집성을 .5% 추가로 설명하였다. 즉, 조절변인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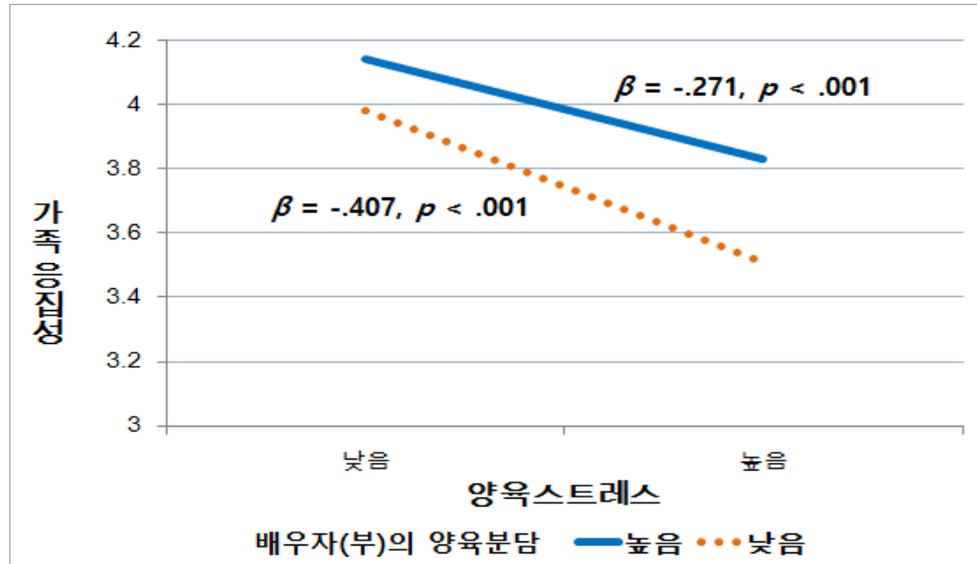
〈표 2〉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모델	변인	$\beta$	$R^2$	$\Delta R^2$	F
1	모 나이	-.035	.017	-	9.377***
	모 교육수준	.080**			
	월평균 가구 소득	.082**			
2	모 나이	-.019	.191	.173	168.919***
	모 교육수준	.048*			
	월평균 가구 소득	.011			
	양육 스트레스	-.345***			
	아버지의 양육 분담	.209***			
3	모 나이	-.017	.196	.005	9.871**
	모 교육수준	.048*			
	월평균 가구 소득	.009			
	양육 스트레스	-.339***			
	아버지의 양육 분담	.209***			
	양육 스트레스 x 아버지의 양육 분담	.071**			

\*  $p < .05$ , \*\*  $p < .01$ , \*\*\*  $p < .001$ .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는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점수에서부터 +1 SD와 평균에서부터 -1 SD의 범주에 속한 연구 대상의 수는 각각 520 (32.4%)명, 556 (34.6%)명 이었으며, 양쪽 범주에 과반수 이상씩 고루 분포하여 분석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더 적극적인 양육 분담 집단( $\beta = -.271, p < .001$ )과 덜 적극적인 양육 분담 집단( $\beta = -.407, p < .001$ )의 경우 모두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응집성을 유의하게 예언해주었으나 높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은 낮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그림 1]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 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가족 유연성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 $\beta = .092, p < .01$ )과 월평균 가구소득( $\beta = .076, p < .01$ )이 유의미하였으며, 가족 유연성을 1.9%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 $\beta = .060, p < .05$ )만이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beta = -.335, p < .001$ )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 $\beta = .296, p < .001$ )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이는 종속변인을 21.5% 추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도 유의하였으며( $\beta = .048, p < .05$ ), 이는 가족 유연성을 .2% 추가로 설명

하였다. 즉, 조절변인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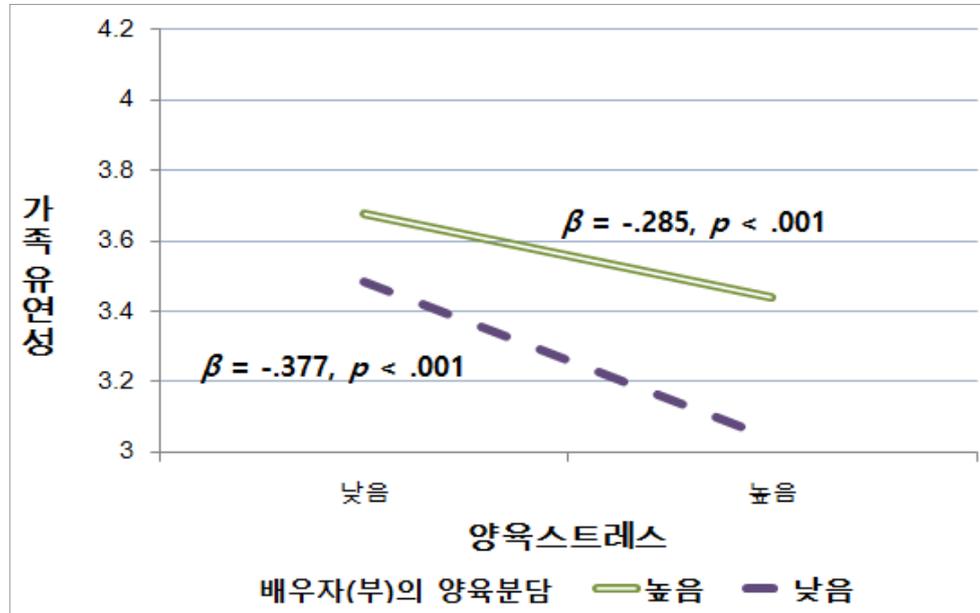
〈표 3〉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모델	변인	$\beta$	$R^2$	$\Delta R^2$	F
1	모 나이	-.016	.019	-	10.008***
	모 교육수준	.092**			
	월평균 가구 소득	.076**			
2	모 나이	-.008	.234	.215	221.577***
	모 교육수준	.060*			
	월평균 가구 소득	.006			
	양육 스트레스	-.335***			
	아버지의 양육 분담	.296***			
3	모 나이	-.010	.236	.002	4.722*
	모 교육수준	.059*			
	월평균 가구 소득	.007			
	양육 스트레스	-.331***			
	아버지의 양육 분담	.297***			
	양육 스트레스 x 아버지의 양육 분담	.048*			

\*  $p < .05$ , \*\*  $p < .01$ , \*\*\*  $p < .001$ .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는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분포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각 집단별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더 적극적인 양육 분담 집단 ( $\beta = -.285, p < .001$ )과 덜 적극적으로 양육 활동을 분담하는 집단 ( $\beta = -.377, p < .001$ )의 경우 모두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유연성을 유의하게 예언해주었으나 높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은 낮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은 [그림 2]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PSKC)의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0-66개월에 해당하는 유아 자녀(평균 월령 62.65개월)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관계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및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응집성,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지각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응집성과 유연성이 낮고, 배우자가 자녀 양육 활동에 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홍예지·이순형, 2017; Margalit & Kleitman,

2006)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아 및 초기 단계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4~5세에 이르는 시점에는 점차 감소하는데(손수경외, 2016; Crnic & Booth, 1991), 이는 영아기의 불안정한 생활 패턴과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아의 욕구를 맞춰주는 데서 기인한 어려움이 유아 시기 접어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이다(김영미·송하나, 2015).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로의 전이를 앞둔 만 5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에 비해 감소하였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양육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련은 양육 상황에서의 부정적 인지-정서 처리과정(Ponnet et al., 2013)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양육 환경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 상태가 어머니가 양육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정서가 결국 전반적인 가족 기능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지각을 낮추고, 배우자의 양육 도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가족이 기능적 역할을 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가족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낮추는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내 응집성은 가족 유연성 및 배우자의 양육 분담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족 유연성 역시 배우자의 양육 분담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기능 중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서로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의 기능적 역할은 배우자로부터의 적극적인 양육 활동의 도움과 모두 관련이 있었다(Abidin, 1992; Kanner et al., 1981).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두 변인 각각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에의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게서 모두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 분담을 하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집단의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

의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에의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게서 모두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 분담을 하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집단의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의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동일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 활동을 분담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분담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에 비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동일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 내에서 느끼는 정서적 연결 및 지지와 같은 가족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양진희·김영철, 2016; 홍예지·이순형, 2017; Koutra et al., 2016)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양육 분담은 1.993점으로 평균 수준보다 낮아 아버지의 양육에의 현실적인 참여가 여전히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유의미한 조절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도움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은 가족 내,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계적 규칙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적절하게 반응하는 가족 유연성( $p < .05$ )에 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대변되는 가족 응집성( $p < .01$ )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가족의 모습이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의 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일정 부분 고정되어 있어 유연한 상황 대처의 수준이 낮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의 유동성이 적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수준이 미미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자녀

를 양육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연대감과 동료의식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최적의 가족 기능을 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자립적 선택의 존중이 균형을 이뤄 가족이 처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변화가 요구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점차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정 내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고유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지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가족 기능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적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아버지 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분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완충적 역할을 할 것이므로 가정 내 양육 스트레스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개입함으로써 아버지가 양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양육과 관련하여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역할 수행이 미흡함을 알고,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제도적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혼 남성이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의 개선이 되어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역할의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 학교, 적극적 부모 역할의 훈련 및 교육과 같은 실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장 내 및 지역 사회의 장기적 지원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 특히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와 가족 내에서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연결 및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효

과를 검증하여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중요성 부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영향을 횡단적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는데 한계가 있다. 각 측정 변인을 동일 시점에 측정한 횡단 연구의 검증 방법으로는 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과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를 넘어서 변인 간 연속된 종단적 추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분담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주관적 보고만을 분석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아버지 자신이 지각한 양육 분담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활동 분담과 관련하여 자신의 보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보고를 모두 고려하여 아버지 효과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발달 및 적응 관련 특성을 포함시켜 본 연구의 모형을 확장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련 특성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역기능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자녀 특성 및 가정 환경적 특성을 추가하여 통합적인 변인 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병재(2010).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4), 93-110.
- 고정자·김갑숙(2000).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4.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은정·박성덕·김경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육아정책연구*, 8(1), 129-151.
- 남효정·이숙현(2011).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07-121.

- 손수경·장유나·노주성·홍세희(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 양진희·김영철(2016).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81-106.
- 연은모·윤혜옥·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 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육아정책연구소(2013). *한국아동패널연구 6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 차동혁(2014).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과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http://kostat.go.kr>에서 2017년 3월 23일 인출
- 허영립(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홍예지·이순형(2017).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8(2), 37-50.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42-1050.
- Deater-Deckard, K. (2004). *Parenting str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hamari, M. (2012). Family function and depression, anxiety, and somat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2(5), 101-105.
- Gleditsch, R. F., & Pedersen, D. E. (2017). Mothers' and fathers' ratings of parental involvement: Views of married dual-earners with preschool-age children. *Marriage & Family Review*, 1-24.
- Goldenberg, H., & Goldenberg, I. (2013). *Family therapy: An overview (8th ed.)*. Belmont, CA: Brooks/Cole.

- Hassall, R., Rose, J., & McDonald, J. (2005).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effects of parental cognitions in relation to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6), 405-418.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Koutra, K., Simos, P., Triliva, S., Lionis, C., & Vgontzas, A. N. (2016). Linking family cohesion and flexibility with expressed emotion, family burde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aregivers of patients with psychosis: A path analytic model. *Psychiatry Research, 240*, 66-75.
- Krug, S., Wittchen, H-U., Lieb, R., Beesdo-Baum, K., & Knappe, S. (2016). Family functioning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3*, 184-189.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2-3), 23-42.
- Leary, A., & Katz, L. F. (2004). Coparenting, family-level processes, and peer outcomes: The moderating role of vagal ton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593-608.
- Leidy, M. S., Guerra, N. G., & Toro, R. I. (2010). Positive parenting, family cohesion, and child social competence among immigrant Latino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3), 252-260.
- Margalit, M., & Kleitman, T. (2006). Mothers' stress, resilience and early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21*(3), 269-283.
- Mitchell, D. B., & Hauser-Cram, P. (2009). Early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Two years after early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2*(1), 3-16.
- Mitchell, D. B., Szczerepa, A., & Hauser-Cram, P. (2016). Spilling over: Partner parenting stress as a predictor of family cohesion in parent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9-50*, 258-267.
- NICHD Early Child Care Network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 Olson, D. H. (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3), 337-351.

- Olson, D. H. (2010). *FACES-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 Gorall, D. M. (2006). *FACES IV and Circumplex Mode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Gorall, D. M., & Tiesel, J. W. (2007). *FACES-IV package: Administration*.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Leeuwen, K. V., Bastiaen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Shigeto, A., Mangelsdorf, S. C., & Brown, G. L. (2014). Roles of family cohesiveness, marital adjustment, and child temperament in predicting child behavior with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2), 200-220.
- Zhang, C., Cubbin, C., & Ci, Q. (2016).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playful interaction: The role of emotional support. *Journal of Family Studies, 1*-15.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이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메일 ysh@snu.ac.kr

## Abstract

# Links among Parenting Stress,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Yea-Ji Hong and Soon-Hyung Yi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Data were drawn from the six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conducted in 2013. The subjects were 1,608 mothers of children aged 60–66 month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alpha,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ver. 22.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both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had main effects 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respectively. Especial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the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moderated not only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family cohesion but also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family flexibility.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ed of fathers' active role in parenting to support the spouse's psychological well-being within a family. Moreover, findings suggest for the programs to promote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ing with the help of the parenting role training education and to encourage the family friendly public policy.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renting stress, family cohesion, family flexibility,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